



차준환 “모든 준비 끝났다”

대한민국의 차준환이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 인근 피겨스케이팅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톱10을 바라보는 '간판' 차준환(고려대)은 본 무대에서 '필살기인 쿼드러플(4회전) 점프 3개를 뛴 예정이다. 그는 8일 오전 리허설 훈련을 한 뒤 곧바로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차준환은 “오늘 훈련은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며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훈련한 것 같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내일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배추보이’ 이상호 골든보이 될까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대회전

오늘 금빛 레이스 기대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메달 사냥

피겨 차준환·이시형 쇼트 출전

‘배추보이’ 이상호(하이원)가 8일 금빛 레이스에 나선다.

8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건팅 스노우파크에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 경기가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러진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이상호는 이번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에 도전한다.

강원도 사북 출신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랭지 배추밭을 개량한 썰매장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탄 계기로 ‘배추 보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다.

이상호는 올 시즌 7차례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평행대회전과 평행회전 경기 성적을 합산한 남자부 종합 순위에서 1위를 달려 강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이상호는 베이징으로 오기 전 “이번 올림픽 목표는 금메달이다. 각오는 지금까지 성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대회전은 가파른 경사를 빨리 내려오는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예선으로 16명을 먼저 가린 뒤 16강부터는 두 명씩 토너먼트 맞대결을 통해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강 토너먼트는 오후 4시 15분(한국시간) 시작한다.

김상겸(하이원)도 이상호와 함께 레이스를 펼치



이상호가 지난 5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건팅 스노우파크 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코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며, 함께 열리는 여자 평행대회전에는 정해립(경기 도스키협회)이 출전한다.

8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도 메달 소식을 기대해볼 만하다.

평창 대회에서 이 종목 동메달을 거머쥔 김민석(성남시청)이 오후 7시 30분 예선부터 레이스를 시작한다.

2020년 사대륙선수권 남자 1,500m에서 우승했고, 올 시즌 월드컵 랭킹 7위에 올라있는 김민석은 베

이징에서 평창 때보다 밝은 색깔의 메달을 바란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차준환과 이시형(고려대)이 쇼트프로그램에 나선다.

은퇴를 예고한 귀화 선수 아일린 프리셰(경기도청)는 루지 여자 1인승 3·4차 시기에서 생애 마지막 슬라이딩을 펼친다.

바이애슬론에서는 러시아에서 귀화한 티모페이 랍신(전남체육회)이 남자 20km 개인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2골 먼저 넣고도 ... 한국 여자 축구 아시안컵 준우승

중국에 2-3 역전패

한국 여자 축구가 사상 처음으로 치른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준우승했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6일 인도 나비 스타디움의 D.Y. 파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AFC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중국에 2-3으로 역전패를 당하고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1975년 시작한 여자 아시안컵에 1991년부터 출전한 한국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결승 진출을 이뤄냈다.

이전까지 결승에도 오른 적이 없었다. 준결승에 만 4차례(1995·2001·2003·2014년) 진출해 2003년 3위가 최고 성적이었었는데, 올해는 조별리그(2승 1무·C조 2위)부터 호주와의 8강전(1-0 승), 필리핀과의 준결승전(2-0 승)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처음으로 결승 무대까지 밟았다.

이날 중국과의 결승전에선 전반을 2-0으로 앞서 우승 희망을 불렀으나 후반에 3골을 내리 내줘 트로피는 들어 올리지 못했다.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승부차기에서 따돌리고 결승에 오른 중국은 대회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9회로 늘렸다. 2006년 이후 16년 만의 정상 탈환이다. 우승까지 달지 못했으나 한국 여자 축구는 성인 대표팀 기준으로 가장 큰 대회 결승에 오르는 수확을 남겼다. /연합뉴스

## 한 자리에 모인 야수·투수 합동 수비 훈련

KIA 함평 스프링캠프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

‘호랑이 군단’의 캠프가 더 세밀해진다.

KIA는 지난 1일 함평 헬린저스필드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2022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캠프가 진행되면서 KIA는 7일 두 번째 턴을 찍었다.

초반 선수들의 몸 상태에 집중했던 캠프는 점점 실전엔 맞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불펜도 뜨거워지고 있다.

외국인 선수 로니 윌리엄스가 6일 두 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했고, 7일에도 유승철, 윤중현 등이 두 번째 점검 시간을 가졌다. 임기영도 캠프 첫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불펜 피칭에 앞서 그라운드에서는 캠프 후 처음 투수, 야수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첫 팀플레이 훈련이 진행되면서 따로 훈련을 진행했던 투수들과 야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번트 포메이션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수비 훈련을 진행했다.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캠프가 더 세밀해지고 있는 셈이다.

초반 추운 날씨가 변수가 됐지만, 캠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종국 감독은 “날씨가 추워서 그랬지만 선수들이 진지하게 잘 하고 있다. 다들 준비를 잘해온 것 같다”며 “다음 턴부터는 날도 따뜻해진다”고 한다. 올 시즌 해를 만하다고 생각한다. 자리가 정해진 선



KIA 선수들이 7일 함평 헬린저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 첫 야수·투수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수들 외에도 잘 할 거라 믿는다. 선수들이 긴장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왔다”고 언급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상이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이번 캠프의 주요 변수다.

기대했던 신예 자원들이 코로나 이슈로 아직 캠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김 감독 입장에서도 큰 아쉬움 중 하나다.

김 감독은 “중요한 시점인데 안타깝다. 바로 합류를 하기는 힘들고 재할하고, 퓨처스 운동을 하는 등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무작정 하다가는 부상 위험이 있다. 늦게 합류하면서 오버 페이스할 수도 있

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쟁의 새로운 축으로 기대했던 신예 자원들이 빠져나간, 캠프 분위기는 이미 뜨겁다. 5일부터 합동훈련도 진행되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 속 ‘팀 퍼스트’를 위한 캠프가 전개되고 있다.

KIA는 23일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첫 실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을 디데어로 더 세밀하게 움직이게 될 캠프, 선수단은 8일 캠프에서 두 번째 휴식일을 보내면서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선 놀린, 6번째 도전 무대 펼쳐진다

미·일·캐나다·멕시코·도미니카

5개 프로야구 리그 경험

“수비 밟고 더욱 공격적으로 피칭”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놀린에게 KBO는 6번째 리그다. 그는 미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도미니카 그리고 일본 리그를 경험했다.

2020년 일본 세이부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놀린은 올해 KIA 유니폼을 입고 다시 ‘스몰볼’을 맞게 된다.

놀린은 “한국에 오게 돼서 기대가 크고 흥분된다. 다른 나라에서 야구 경험이 많다”고 한국에서의 새 도전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

그는 “일본에서는 준비가 많이 되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루틴을 존중해주시고, 팀과 스케줄을 맞춰서 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분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배려를 해주신다. 팀에 맞게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루틴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린은 지난 6일에는 첫 불펜 피칭도 소화하면서 자신의 리듬대로 천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모든 게 좋았다. 특히 2주 만에 공을 던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무리하지 않고 제구에 신경 써서 천천히 준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놀린은 이종직, 슬라이드 스텝 등을 활용한 4-5개의 폼을 가지고 있다. 놀린은 첫 불펜 피칭에서 자신이 가진 다양한 폼을 시도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점검 시간을 가졌다.

놀린은 “더블클로로 하고, 다리를 올린 다음에 멈추고, 꼬아서 던지기도 하고, 슬라이드 스텝으로도 한다. 포수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했다. 시즌 시작하면 주전 포수와 호흡을 맞춰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상황별로 어떤 투구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섞어서 경기할 수 있다. 그게 내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첫 피칭에서 대해서 김종국 감독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종국 감독은 “놀린의 재구력이 좋은 것 같다.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던지고 싶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던진다. 다양한 폼을 가지고 있는데 야구는 타이밍을 뺀 싸움이다. 게임도 하고 그러면 금방 적응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긴 호흡으로 시즌을 준비하면서 6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놀린은 개인보다는 ‘팀’을 말한다.

그는 “타자를 공부하고 공격적으로 피칭하면서, 수비를 밟고 던지다 보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특별한 목표는 없다. 팀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고 시즌을 준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함평·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